

점주에 마케팅 비용 '덤터기'... "이게 상생이냐"

가맹점 희생양 삼아 본사는 두 자릿수 매출 증가에 희색 GS25·세븐일레븐도 CU 따라 하기... 해당 점주들 불안

〈1면에서 계속〉 앞서 2021년 CU는 '2022년 도 가맹점' 상생안을 내놔다. 이로써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본사가 나눠주겠다는 취지에서 3년간 지원하던 전기료 지원을 중단했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 대신 점포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지원책이라며 내놓은 상생안상제도는 매달 CU가 지정한 신상품 도입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주들은 상생안상제도가 점주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고 CU 본사는 상생안상제를 이용해 신상품 발주를 강제하고 있다며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근래 급상승한 상품 원가도 반품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2-3년 전만 해도 CU 본사가 지원하는 반품 비용은 부족함이 없었으나 상생안상제로 점주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상생안상제도가 상품발주 및 판매 촉진 명목으로 상품 발

주 금액에 비해 반품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CU를 운영하는 한 편의점주는 "상생안상제도로 CU가맹점주들이 겪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는 상품밀어내기 제도인 '상생 신상품 제도 폐지'와 '전기료 지원'을 다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CU 관계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단순 비용 지원 방식이 아닌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을 돕는 상생안을 운영한 결과 관련 매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2024년 상생안 역시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가맹점에 충분한 안내 및 동의를 얻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U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 CU 점주 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U 상생지원제도 만족도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CU가맹점주들이 상생안상제도가 상생을 가장한 밀어내기라며 '신상품 도입 지원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편의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BGS리테일 남충수 기자

에 따르면 응답자의 77.7%는 상생안상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GS25·세븐일레븐 제대로 된 상생안 나올 수 있을까
GS25·세븐일레븐도 CU의 상생안상제도를 도입했다. 전기료 지원 중단으로 본사의 고정 지출은 줄고 타사 제품을 점주들에게 발주해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 매출을 내는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CU의 상생안상제도가 매출을 올리는 데

좋은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U가 상생 신상품 지원제를 도입한 이래로 지난해 CU의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해 GS의 7.9%를 추월했다.

CU의 상생안상제 도입 이후 매출 증가를 두고 GS25·세븐일레븐 편의점 관계자들은 각 편의점 본사가 신상품 발주 비율에 따른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협의회 한 관계자

는 "CU에 비해 세븐일레븐은 전기료 지원을 바로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CU 가맹점주들이 상생안으로 겪는 운영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속내를 밝혔다.

GS25·세븐일레븐도 지난해 상생안을 공개했다. GS는 점포당 재고 처리 한도를 월간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세븐일레븐은 간편식 폐기지원액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ykim@skyedaily.com

동아ST '엡티스' 인수 ADC 신약 개발 본격

동아에스티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표적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Antibody Drug Conjugate)'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다.

동아에스티는 ADC 전문 기업 엡티스(Abtis)를 인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동아에스티는 엡티스의 경영권과 신규 모달리티인 3세대 ADC 링커 플랫폼 기술(아이프리라인)을 인수해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엡티스는 올해 말 동아에스티 종속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향후 동아에스티는 엡티스가 보유한 ADC 항암(아이프리라인)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을 활용해 신규 아이프리라인 확보와 ARC/APC/ISAC 플랫폼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동아에스티-에스티-에스티젠 바이오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에스티만의 독자적인 ADC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ADC CDMO 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엡티스는 항체 변형 없이 위치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킬 수 있는 3세대 ADC 링커 기술인 '엡클릭'(AbClick)을 개발했다. 엡티스는 지난해 글로벌 CDMO 론자와 ADC 사업 협력을 체결하며 위치 선택적 3세대 ADC 링커 기술의 글로벌 우수성을 입증했다.

엡티스는 엡클릭 Pro 및 Standard 플랫폼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해 ADC의 체내 반감기를 길거나 짧게 조절이 가능하다. 현재 엡클릭 기반의 위암-췌장암 타겟인 클라우딘(Claudin)18.2 ADC 후보물질 AT-211을 개발하고 있다. AT-211은 전임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동아에스티는 2024년 임상 1상 IND도 신청할 계획이다.

ADC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을 결합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ADC 글로벌 시장이 2022년 59억 달러에서 2026년 1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재만 기자 jmeom@skyedaily.com

'홈파티 열풍'... 홈루텐스족 겨냥한 아이템 쏟아진다

식품업계, 연말 맞춤 간편식·디저트·음료 '붐물' 고물가 영향 집에서 소규모 보내는 소비자 늘어

고물가 영향에 송년회 대신 집에서 소규모로 연말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홈파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업계는 홈파티족을 겨냥한 다양한 먹거리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코카-콜라는 크리스마스의 마법 같은 순간을 담은 '2023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지'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장식용 오너먼트를 디자인에 적용해 크리스마스 특유의 감성을 패키지에 담아냈다. 코카-콜라 오리지널은 코카-콜라의 아이코닉한 빨간색을, 코카-콜라 제로는 녹색을 더해 크리스마스의 상징적 컬러를 활용했다.

코카-콜라는 브랜드의 상징 아이템을 담

은 오너먼트 8종을 함께 선보였다. 오너먼트는 '2023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지' 제품 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공식 앱 '오-크플레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후 즉석 당첨 이벤트에 응모해 랜덤으로 획득 가능하다.

집에서 손쉽게 음식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도 인기다. CJ제일제당은 콘크림수프, 치킨크림수프 등 핫한 소프트밀 수프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제품은 진한 맛의 크림소스에 큼직하고 신선한 재료를 통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전자레인지로 빠르게 완성 가능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하림의 스트릿푸드 전문 브랜드 벨팅피스는 MZ맞춤형 핫도그 3종을 출시했다.



신세계푸드의 가성비 케이크는 즐거운 꽃케이크와 꽃과 함께 부쉬드노엘. 신세계푸드

하림 벨팅피스 핫도그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80% 이상 넣어 육즙이 가득한 소시지를 카스텔라처럼 부드러운 도우로 감싼 제품이다. 오리지널 핫도그, 체다치즈 핫도그, 체다할라피노 핫도그 등 3종으로 구성

됐다. 냉동 보관한 벨팅피스 핫도그는 에어프라이거나 전자레인지로 손쉽게 조리 가능하다.

파티에서 즐기기에 완벽한 디저트도 눈길을 끈다. 오리온은 겨울 한정판 마켓오다

쿠아즈 레드베리를 출시했다. 다쿠아즈 레드베리는 특유의 부드러운 폭신한 식감에 동결 건조한 딸기 원물과 딸기 크림으로 상큼한 맛을 더했다. 여기에 프랑스 정통 제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카페인 베이커리에서 즐기는 수제 디저트의 모습을 구현했다.

신세계푸드는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9980원에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한 가성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였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영의 숲'과 컬래버를 통해 선보인 이번 크리스마스 가성비 케이크는 즐거운 꽃케이크와 꽃과 함께 부쉬드노엘 등 2종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해태제과의 프리미엄 젤라토 브랜드 빨라쵸는 쫄쫄한 젤라토로 만든 크리스마스 한정판 케이크를 선보였다. 딸기 좋아산타와 X-MAS초코마를 2종으로 구성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맛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게보린정: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300mg + 이소프로필안티피린 150mg + 무수카페인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막), 타박상, 골절상, 염좌상(뱀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광고심의필: 2021-1595-003800**